

주요개념 :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지지, 대처

후기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지지 및 대처

이 은 영* · 탁 영 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통적으로는 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과학적 탐색이 주로 문제행태와 병리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점차로 청소년의 다원적인 발달적 요구와 사회적, 정신적 요구들에 대한 보호적이고 완충적인 복원인자(resiliency factors)에 관심을 갖는 연구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Luthar & Zigler, 1991; Werner, 1992). 즉, 복원인자 중점적 방향전환은 청소년의 신체적, 사회적, 또는 심리적 발달과 요구로 인한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적인 요인들을 확인하고 또한 직접적으로는 청소년의 안녕과 발달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일컫는다.

청소년기의 다원적 요구는 가족 내에 위기적 전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신체적, 지적,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눈에 띄는 획기적이고 역동적인 변화가 청소년기에 일어난다는 점이다. 둘째는 기존의 가족 내에서 있어왔던 관습적인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 작용 유형에 조정과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아동기, 성인기 그리고 가족의 역할에 대한 도전이 가해진다는 점이다. 즉, 자녀의 발달적 변화와 함께 부모

또한 중년기로의 변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족의 과도기적 요구는 좀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나타내게 된다(McKenny & Price, 1994). McCubbin, Patterson, Bauman & Harris(1981)는 청소년기 스트레스의 50% 이상은 부모와의 갈등에서 야기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충격을 완화시켜주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변인으로 강조되고 있다(문성원과 한종철, 1996). 인지적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의미한 타자로부터 받은 지지적 행동(조언, 안심)의 인지로서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의 향상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 발현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은 선행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Cohen & Wills, 1985; Heller & Swindle, 1983; Tak, 1994; Thoits, 1985, 1986). 아동기의 발달 요인들이 생애 발달적(Life course development) 측면에서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사회적 적응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이 오랫동안 지지되어지고 있다. 특히, 아동기의 사회인지 발달 요소들은 성인기의 정신병리적 양상과 사회적, 정서적으로 부적절한 상호관계 형성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아동기의 무수히 많은 발달적 요소들 중에서 일상 생활에서 부모의 행동과 태도는 특히 사회적 조직망이 제한된 아동

* 진주보건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기에 가장 주된 영향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Parker & Gladstone, 1996).

Bowlby(1969, 1973, 1980)는 유아와 주돌봄자인 어머니와의 관계가 발달의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유아와 부모와의 관계가 사회적 발달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들 부모와의 애착의 양상과 정도는 자아와 타자에 대한 내적 역동모형 (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며 특히 이 모형은 아동의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구성하는 사회인지 (social cognition)의 모형으로 작용한다(Pierce, Sarason, & Sarason, 1996). 개인의 사회적 지지의 인지는 가족 관계, 특히 부모와의 초기 관계에 의해 특수한 원형이 구축되며 이는 내재적 역동 모형으로 생애 전반에 걸쳐 개인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규정하게 된다. 즉, 부모와의 애착 유형이 아동의 자아 개념 형성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주며, 부모와의 긍정적, 부정적 애착 유형에 따라 타자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타자에게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기대하거나 의지하는데 영향을 받는다(탁영란, & 이희영, 1998). 즉,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부모와의 유대 관계는 아동이 자아와 타인 그리고 세계와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얻는데도 높은 개인적 효율성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

Jessor & Jessor(1977)는 변화와 누적된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문제 행동 양태인 흡연, 음주, 성행위 등을 시작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청소년의 비행이나 음주, 흡연, 약물 사용 등은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문제가 닥치면 해결보다는 도피를 위하여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물질 남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부적절한 스트레스 대응은 자살 충동 경험, 우울, 불안, 비행 등의 행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김소야자, 1986).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우울, 불안, 흡연 등과 같은 청소년기 스트레스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역학적 문제를 탐색하고 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들이다(박중규과 최정훈, 1990; 전성일, 이정호, 이기철과 최영민, 1996; 최경민과 한성희, 1997; Birtchnell, 1988).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발달 관련 스트레스와 일상의 누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복원변인으로서의 후기 청소년의 인지적 사회적 지지와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기의 부모-자녀 관계 유형을 파악하고 관계를 규명하여 청소년기 정신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간호 중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아동기의 부모-자녀 관계, 청소년 후기의 인지적 사회적 지지 및 대처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아동기의 부모-자녀 관계 유형에 따른 인지적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차이를 탐색함으로써 청소년 후기 적응을 도모하는 중요한 구조변인을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기의 부모-자녀 관계, 청소년 후기의 인지적 사회적 지지 및 대처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2) 아동기의 부모-자녀 관계 유형에 따른 청소년 후기의 인지적 사회적 지지 및 대처의 차이를 파악한다.

II. 문헌 고찰

애착 이론에서는 유아의 초기 18개월간의 부모와의 관계가 사회인지 발달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애착의 양상과 정도는 자아와 타자에 대한 내적 역동모형을 형성하며 이 모형은 아동의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구성하는 모형으로 작용한다 (Bowlby, 1969, 1973, 1980; Pierce, Sarason & Sarason, 1996). 즉,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부모와의 유대 관계는 아동이 자아와 타인 그리고 세계와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얻는데도 높은 개인적 효율성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육에 관한 연구들은 양육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의 양상을 "돌봄(care)"와 "통제 및 보호(control, protection)"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Arrindell, et al., 1986; Parker, Tupling & Brown, 1979; Roe & Siegelman, 1963). Parker, Tupling & Brown (1979)은 양육양상이 아동의 정신, 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하여 부모와의 유대 관계 측정 도구인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를 개발하

였다. 25문항으로 구성된 PBI는 돌봄적 측면과 보호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부모-자녀 관계 유형을 파악할 수 있으며 많은 연구를 통하여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기 정신, 사회적 문제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 청소년기의 우울, 자살, 섭생 이상과 같은 정신 사회적 병리에 대한 비특이적 위험인자의 하나로서 부적절한 아동기의 부모-자녀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125명의 신경성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Parker(1983b)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대조군에 비하여 자신들의 부모는 돌봄적 측면이 낮고 과보호적 측면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Klimidis, Minas & Ata(1992)는 강박관념, 충동, 그리고 반추(反芻)의 경험을 가진 호주 청소년 631명을 연구한 결과 강박관념과 반추 정도가 심할수록 낮은 부모의 돌봄과 높은 과보호를 나타냈었다. Russell, Kopec-Schrader, Rey, & Beumont(1992)는 20명의 대식증 환자와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아버지에 대한 낮은 돌봄과 높은 과보호를 보고하였다.

Birtchnell(1988)은 우울증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그들의 초기 부모와의 관계에 관하여 PBI를 면접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어머니와의 낮은 돌봄적 유대 관계와 어머니의 지나친 과보호를 보고하였다. 반면 아버지와와의 관계에 있어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BI를 이용한 많은 연구에서 "애정 없는 통제" 유형의 부모-자녀 관계, 즉 돌봄적 측면이 낮고 통제적 측면이 높은 양육의 형태와 청소년기의 정신, 사회적 문제행동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Hickie, et al., 1990; Klimidis, Minas & Ata, 1992; Parker, 1983b; Russell, Kopec-Schrader Rey, & Beumont, 1992).

Flaherty & Richman(1986)은 의대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와 최근의 인지적 사회적 지지망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아동기에 부모의 돌봄과 정서적 지지에 대한 인지와 성인기의 사회적 지지 수준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과보호적 양육은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Parker & Barnett(1988)는 첫아이를 출산한 129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어머니로부터의 돌봄과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이 사회적 지지 확대의 유효성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Sarason, Sarason & Shearin (198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돌봄적 부모 자녀 유대 관계가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관계

가 있었으며, 과잉 보호적 부모 자녀 관계는 사회적 지지와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Sarason, Shearin, Pierce & Sarason(1987)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부모의 돌봄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부모의 과잉 보호와는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 아동기 부모의 높은 돌봄적 양육에 대한 기억과 현재의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인지와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Henderson, Duncan-Jones, Byrne & Scott, 1980; Sarason, Sarason & Shearin, 1986; Sarason, Shearin, Pierce & Sarason, 1987).

사회적 지지는 수용된 사회적 지지(received social support)와 인지적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를 포괄하고 있다. 수용된 사회적 지지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도움 행위를 말하며, 인지적 사회적 지지는 필요할 때 제공되어진다고 보는 도움행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한다. 특히 두 가지 사회적 지지의 요소에 관해 학자들은 수용된 사회적 지지에 비해 인지적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있다 (Norris & Kaniasty, 1996; Tak, 1994).

McNett(1987)은 인지적 사회적 지지의 이용 가능성, 인지적 사회적 지지의 효과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이용에 대한 제한이 위협의 정도와 대처 반응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지적 사회적 지지의 이용 가능성은 위협의 정도와 대처 반응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지적 사회적 지지의 이용 가능성은 대처반응(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을 통하여 대처 효과와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의한 타자로부터 받은 지지적 행동(조언, 안심)으로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의 향상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 발현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많은 선행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Cohen & Wills, 1985; Heller & Swindle, 1983; Tak, 1994; Thoits, 1985, 1986).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연구 대상자는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여대생으로 강원도 지역에 위치한 3개 대학 1학년 277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9.95세(±0.79)로서 최소 18세에서 최대 23세까지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모두 생존한 경우가 249명(89.9%)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 중 한 분만 생존한 경우는 18명(6.5%),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 상태인 경우는 7명(2.5%)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중 130명(46.7%)은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으며, 147명(53.1%)은 자취, 하숙,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형제 수는 평균 3명(±1.19), 하루에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은 평균 1시간 40분(±2.00)이었다.

자료 수집은 1998년 5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설문지를 이용한 자가 보고식 조사를 시행하였다.

2. 측정 도구

1)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관계는 Parker, Tupling & Brown (1979)의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 25문항을 번역하여 전문가 1인의 자문을 구하여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PBI는 청소년들이 지각한 16세 이전까지 자신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기억하여 자가 보고토록 고안되었으며, 지각된 부모와의 유대 관계는 "돌봄적(care)" 측면 12문항과 "과보호적(overprotection)" 측면 13문항으로 두 가지 하위 척도로 분류된다. 4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는 0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3점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부모에 대하여 돌봄적 측면은 0-36점, 과보호적 측면은 0-39점 사이에 분포한다. 그러므로 돌봄적 측면이 낮을수록, 그리고 과보호적 측면이 높을수록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자녀 관계를 시사한다.

또한, Parker, Tupling & Brown(1979)은 돌봄적 측면과 과보호적 측면의 높고 낮음을 중심으로 "최적의 부모-자녀 관계", "자애로운 구속", "애정 없는 통제", "무관심한 부모" 유형으로 네 종류의 부모-자녀 관계 유형을 분류하였다.

PBI의 개발 당시 내적 신뢰도는 "돌봄적(care)" 측면에서는 .88, "과보호적(overprotection)" 측면에서는 .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돌봄적(care)" 측면은 .87, "과보호적(overprotection)" 측면은 .73으로 나타났다.

2) 인지적 사회적 지지

인지적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는 Weinert & Brant(1987)가 개발한 Personal Resources Questionnaire 85 : PRQ-part II 를 탁영란과 이희영(1998)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번안 수정한 25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Weiss의 이론적 기틀에 의해 구성된 측정 도구로서 친밀감, 자아개념 지지, 사회통합적지지, 양육, 지도와 정보지지의 5가지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Yarcheski, Mahon & Yarcheski(1992)의 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탁영란과 이은영(2000, 게재 예정)의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번안 도구의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각 항목은 7점 척도로 각 문항의 합의 평균을 가지고 인지적 사회적 지지도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사회적 지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3) 대처

대처는 Folkman & Lazarus(1985)의 Way of Coping 66문항을 번역하여 전문가 1인의 자문을 구하여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특정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적 외적 요구를 다루기 위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사고 과정과 행동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므로써 대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4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는 3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으로 처리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 전략이 다양하며 대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0으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Win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가정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서술통계 분석을 시행한 후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OVA, 그리고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부모-자녀 관계, 인지적 사회적 지지 및 대처

아동기의 부모와의 유대 관계는 “돌봄적(care)” 측면과 “과보호적(overprotection)” 측면의 두 가지 하위 척도로 분류된다. “돌봄적” 부모-자녀 관계는 평균 23.95 (±5.56)로 “과잉 보호적” 관계는 평균 14.49(±4.91)로 나타났다.

인지적 사회적 지지 정도는 평균 127.40(±19.70)으로 7점 척도상 평점 5.10(±0.79)으로 다소 높은 인지적 사회적 지지를 나타냈으며, 대처는 평균 104.82(±12.15)로 4점 척도상 평점 1.59(±0.18)로 보통의 대처 정도를 나타냈다. 인지적 사회적 지지의 5가지 하부 영역의 평균은 친밀감 27.18(±5.14), 지도/정보지지 25.83(±4.93), 사회통합지지 25.30(±4.91), 자아개념지지 24.68(±4.06), 양육 24.40(±4.38)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 인지적 사회적 지지 및 대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부모의 돌봄적 관계는 청소년 후기의 인지적 사회적 지지와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r=0.36, p=0.00) 부모의 과보호적 관계는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r=-0.19, p=0.00). 이는 부모-자녀관계의 두 가지 측면 중 돌봄적 측면이 사회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내적 역동 모형으로 작용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결과이고, 과보호적 측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관계의 유형이 갖는 중요성을 의미한다.

돌봄적 측면과 과보호적 측면의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 후기의 대처 정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제시하지 않았으나(r=0.08, p=0.19; r=-0.08, p=0.16) 인지적 사회적 지지와 대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0.26, p=0.00).

돌봄적 부모-자녀 관계와 인지적 사회적 지지의 하부

영역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친밀감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순 상관관계(r=.37)를 보였으며, 지도와 정보(r=.35), 사회통합(r=.30)등 중등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대처정도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자아개념의 인지적 사회적 지지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r=.25)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타 연구에서 제 사회심리 변인들이 .10에서 .40 정도의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높은 상관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돌봄적 부모-자녀 유대 관계가 인지적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관계가 있었으며, 과보호적 부모-자녀 관계는 인지적 사회적 지지와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Sarason, Shearin, Pierce & Sarason, 1987; Sarason, Sarason & Shearin, 1986). 또한, 개인의 유년시기 어머니, 아버지와의 애착 경험에 대한 지각 정도와 인지적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제시한 탁영란과 이희영(1998)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인지적 사회적 지지와 대처 전략 사용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인지적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처 전략이 다양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문성원과 한종철, 1996; Hobfoll, Nadler, Leiberman, 1986; Parker, 1984; Parker, Gladstone, 1996).

2. 부모-자녀 관계 유형에 따른 인지적 사회적 지지 및 대처

Parker, Tupling & Brown(1979)은 돌봄적 측면과 과보호적 측면의 높고 낮음으로 네 가지 부모-자녀 관계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최적의 부모-자녀 관계”는 높은 돌봄 점수와 낮은 과보호 점수를 나타내는 유형이고,

<표 1> 부모-자녀 관계, 인지적 사회적 지지 및 대처의 관계

	돌봄적 측면	과보호적측면	대처	인지적 사회적지지	친밀감	사회통합	양육	자아개념
과보호적측면	-.43**							
대처	.08	-.08						
인지적사회적지지	.36**	-.19**	.26**					
친밀감	.37**	-.16**	.17**	.86**				
사회통합	.30**	-.20**	.21**	.87**	.68**			
양육	.21**	-.04	.24**	.82**	.56**	.63**		
자아개념	.29**	-.21**	.25**	.76**	.54**	.58**	.63**	
지도/정보	.35**	-.18**	.22**	.88**	.77**	.73**	.64**	.53**

** P < .01

“자애로운 구속”은 높은 돌봄 점수와 높은 과보호 점수를 보이는 유형이다. 또한 “애정 없는 통제” 유형은 낮은 돌봄 점수와 높은 과보호 점수를 나타내며, “무관심한 부모” 유형은 낮은 돌봄 점수와 낮은 과보호 점수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돌봄적 측면과 과보호적 측면이 높고, 낮음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부모-자녀 관계 유형을 구분하였다.

277명의 연구 대상자 중 “최적의 부모-자녀 관계”가 96명(34.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애정 없는 통제” 유형 88명(31.8%), “무관심한 부모” 유형 54(19.5%), 그리고 “자애로운 구속” 유형이 39명(14.1%) 순으로 나타났다.

각 부모-자녀 관계 유형에 따른 인지적 사회적 지지와 5가지의 그 하부 영역, 그리고 대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네 가지 부모-자녀 관계 유형에 따른 인지적 사회적 지지와 그 5가지 하부 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대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적 지지의 인지는 “자애로운 구속” 형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평균 135.10(±17.3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밀감, 사회통합, 양육, 그리고 지도/정보 지지 영역에서 “자애로운 구속” 형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평균 29.41(±4.33), 26.80(±4.93), 그리고 25.59(±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개념 지지는 “최적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 26.03(±3.66)을 보였다. 그러나 “애정 없는 통제”형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인지적 사회적 지지는 평균 118.70(±19.5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5가지 하부영역에서도 모두 “애정 없는 통제”유형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의 유형에 따라 인지적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다름을 나타내는 결과이며, 자아와 타자에 대한 인지의 원형으로서의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기의 사회적 지지의 인지의 정도의 차이를 가져옴을 네 가지 유형의 차이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 중에서도 자애로운 구속형의 관계가 인지적 사회적 지지와 각 하부영역에서 높은 결과를 보여 자애로운 구속형 부모-자녀 관계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고, 최적의 부모-자녀 관계는 사회적 지지의 자아개념적 영역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임으로 돌봄은 높고 보호적 통제가 낮은 군에서 자아개념의 사회적지지를 높게 인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처정도는 “최적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 106.32(±11.83)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룹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부모-자녀 관계 유형에 따른 인지적 사회적 지지와 대처

변수	부모-자녀 관계 유형	N	평균(±SD)	F	p
인지적 사회적지지	1	39	135.10(±17.39)	12.46	0.00
	2	88	118.70(±19.51)		
	3	96	133.56(±17.98)		
	4	54	125.06(±18.89)		
친밀감	1	39	29.41(±4.33)	11.01	0.00
	2	88	25.13(±5.37)		
	3	96	28.59(±4.63)		
	4	54	26.41(±4.84)		
사회통합	1	39	26.80(±4.93)	9.07	0.00
	2	88	23.23(±5.24)		
	3	96	26.49(±4.37)		
	4	54	25.46(±4.18)		
양육	1	39	25.59(±3.67)	3.40	0.02
	2	88	23.48(±4.59)		
	3	96	25.08(±4.19)		
	4	54	23.85(±4.51)		
자아개념	1	39	25.78(±3.97)	10.39	0.00
	2	88	23.07(±3.62)		
	3	96	26.03(±3.66)		
	4	54	24.13(±4.50)		
지도/정보	1	39	27.51(±3.98)	10.99	0.00
	2	88	23.80(±5.15)		
	3	96	27.37(±4.39)		
	4	54	25.20(±4.87)		
대처	1	39	105.41(±11.39)	1.19	0.31
	2	88	104.30(±12.81)		
	3	96	106.32(±11.83)		
	4	54	102.57(±12.07)		

부모-자녀 관계 유형 : 1. 자애로운 구속, 2. 애정 없는 통제, 3. 최적의 부모-자녀 관계, 4. 무관심

3. 인지적 사회적 지지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와 대처

청소년의 인지적 사회 지지의 정도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후향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지적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돌봄적 부모-자녀 관계, 과보호적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대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인지적 사회적 지지의 높고 낮음에 따라 돌봄과 대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t=-4.07**:

t=3.01**) 과보호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16). 인지적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에서보다 높은 돌봄 점수와 대처 정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돌봄적 측면이 높을수록 인지적 사회적 지지가 높으며, 인지적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정도가 높은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표 3〉 인지적 사회적 지지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대처

변수	인지적 사회적 지지 정도	N	평균(±SD)	t	p
돌봄	1	145	22.68(±5.54)	-4.07	.00
	2	132	25.33(±5.27)		
과보호	1	145	14.81(±4.99)	1.16	.25
	2	132	14.13(±4.81)		
대처	1	145	102.75(±11.67)	3.01	.00
	2	132	107.09(±12.31)		

인지적 사회적 지지 정도 : 1. 낮은 인지적 사회적 지지, 2. 높은 인지적 사회적 지지

4. 대처정도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인지적 사회적 지지

대처 정도의 높고 낮음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인지적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대처 정도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인지적 사회적 지지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2.14*, t=2.20*, t=-4.12**). 대처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에 비하여 높은 돌봄적 측면 점수와 낮은 과보호적 측면 점수, 그리고 높은 인지적 사회적 지지를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와 대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아동기에 형성된 부모-자녀 관계 유형이 지속적으로 청소년기, 성인기에까지 잠행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조심스럽게 암시하고 있다 (Pierce, et al., 1996).

〈표 4〉 대처정도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인지적 사회적 지지

변수	대처 정도	N	평균(±SD)	t	p
돌봄	1	139	23.24(±5.54)	-2.14	.03
	2	138	24.66(±5.51)		
과보호	1	139	15.13(±4.93)	2.20	.03
	2	138	13.84(±4.83)		

인지적	1	139	122.67(±19.16)	-4.12	.00
사회적지지	2	138	132.16(±19.15)		
친밀감	1	139	26.32(±5.16)	-2.84	.01
	2	138	28.05(±4.99)		
사회통합	1	139	24.24(±4.72)	-3.69	.00
	2	138	26.36(±4.89)		
양육	1	139	23.41(±4.42)	-3.89	.00
	2	138	25.40(±4.11)		
자아개념	1	139	23.86(±4.11)	-3.47	.00
	2	138	25.52(±3.85)		
지도/정보	1	139	24.84(±4.87)	-3.41	.00
	2	138	26.83(±4.81)		

대처정도 : 1. 낮은 대처정도, 2. 높은 대처정도

V. 결론 및 제언

부모-자녀 관계, 청소년 후기의 인지적 사회적 지지 및 대처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부모-자녀 관계 유형에 따른 인지적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차이를 탐색함으로써 청소년 후기 적응을 도모하는 중요한 구조변인 분석과 이에 따른 정신 건강의 예방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시도된 본 연구 결과 돌봄적 부모-자녀 관계일수록 청소년기 인지적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과보호적 부모-자녀 관계일수록 청소년기 인지적 사회적 지지가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기 인지적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처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자애로운 구속”형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인지적 사회적 지지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애정 없는 통제”형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가장 낮은 인지적 사회적 지지를 나타내었다. 인지적 사회적 지지의 하부영역에서는 “자애로운 구속”형 부모-자녀 관계 즉, 돌봄적 측면과 과보호적 측면이 모두 높은 유형에서 가장 높은 친밀감, 사회통합, 양육 및 지도/정보 지지를 나타내었으나, 자아개념 지지는 “최적의 부모-자녀 관계”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가지 하부 영역 모두 “애정 없는 통제”형 부모-자녀 관계 즉 돌봄적 측면이 낮고 과보호적 측면이 높은 부모의 양육 형태에서 가장 낮은 사회적 지지를 나타내었다.

청소년기의 인지적 사회적 지지와 대처 정도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후향적 타당성을 검정한 결과 인지적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에 비하여 돌봄적 부모-자녀 관계가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대처 정도도 높게 나타났고, 대처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에 비하여 인지적 사회적 지지와 돌봄적 부모-자녀 관계의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과보호적 부모-자녀 관계는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애정 없는 통제" 유형의 부모-자녀 관계, 즉 돌봄적 측면이 낮고 과보호적 측면이 높은 양육의 형태와 청소년기에 정신, 사회적 문제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Hickie, et al., 1990; Klimidis, Minas & Ata, 1992; Parker, 1983b; Russell, Kopec-Schrader, Rey & Beumont, 1992)한 연구결과들과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기의 부모와의 애착 양상과 정도가 자아와 타자에 대한 내적 역동모형을 형성하며 이 모형은 아동의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구성하는 모형으로 작용하여 자아와 타인 그리고 세계와 미래에 대한 평가와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얻는데도 개인적 효율성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즉, 부모의 돌봄적 측면이 높을수록 청소년기에 높은 인지적 사회적 지지를 나타내었으며, 인지적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처 정도가 높음을 보여 초기 부모와의 관계 형성이 청소년기의 사회적 지지의 인지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지적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처 능력이 높아 스트레스 관리를 긍정적으로 수행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간에 유의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부모의 돌봄적 측면의 기억이 높고 과보호적 측면의 기억이 낮은 것은 초기 부모의 태도와 행동이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대처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기의 부모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장에 있어서 자아와 타인을 인지하는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므로 발달적 변화와 일상의 누적 사건들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대처 양상으로의 이상 행동과 반사회적인 일탈 행위를 지양하고 긍정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녀간의 돌봄적 유대 관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청소년기의 높은 수준의 인지적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본 연구에서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청소년기의 정신적 건강 증진과 정신병리의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아동기의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아동간호

영역에서는 부모 양육 태도 훈련, 최적의 부모 되기 훈련 등을 예비부모들과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중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요망되며,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아동간호의 실무에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인지적 사회적 지지가 대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사회적 지지의 인지를 높일 수 있는 간호 중재가 청소년기에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의 제한점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본 연구는 지방 여대생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도시 학생과의 비교, 남학생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로, 본 연구는 후향적 조사연구를 하였으므로 개인의 기억이 현재 반영되는 현실성에서 다소 재구축(reconstruct)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변인의 예측을 규명하는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김소야자 (1986). 청소년의 성격발달과 간호. 수문사.
- 문성원, 한종철 (1996).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7(2), 233-246.
- 박종규, 최정훈 (1990). 약물사용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1), 130-147.
- 전성일, 이정호, 이기철, 최영민 (1996). 청소년의 우울증과 우울 행동 장애에서의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7(1), 34-43.
- 최영민, 한성희 (1997). 품행장애 청소년에서의 우울, 불안 증상과 부모양육특성.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8(1), 83-91.
- 탁영란, 이은영 (2000). 청소년의 인지적 사회적지지 측정을 위한 PRQ-Part II.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지, 10(2), 게재 예정.
- 탁영란, 이희영 (1998). 애착유형과 인지적 사회적지지. 간호발전연구소지, 3(1), 78-88.
- Arrindell, W. A., Perris, C., Perris, H., Eisemann, M., Van der Ende, J., & Von Knorring, I. (1986). Cross-national

- invariance of dimensions of parental rearing behavior : Comparison of psychometric data of Swedish depressives and healthy with Dutch target ratings on the EMBU.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8, 305-309.
- Birtchnell (1988). Depression and family relationships-A study of young, married women on a London housing estat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3, 758-769.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 Cohen, S., & Will,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Flaherty, J. A., & Richman, J. A. (1986). Effects of childhood relationship on the adult's capacity to form social suppor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 851-855.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e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Heller, K., & Swindle, R. W. (1983). Social network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with stress. In R. D. Felner, L. A. Jason, J. Moritsugu, & S. S. Farber(Eds). Preventive psychology : Research and practice in community intervention(pp.87-103). New York: Pergamon.
- Heller, K., & Swindle, R. W. (1983). Social network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with stress. New york: Pergamon.
- Henderson, S., Duncan-Jones, P., Byrne, D. G., & Scott, R. (1980). Measuring social relationship: The interview schedule for social interactions. Psychological medicine, 10, 723-734.
- Hickie, I., Wilhelm, K., Parker, G., Boyde, P., Hadzi-Pavlovic, D., Brodaty, H., & Mitchell, P. (1990). Perceived dysfunctional intimate relationship: A specific association with the non-melancholic depressive subtyp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9, 99-107.
- Hobfoll, S. E., Nadler, A., Leiberman, J. (1986). Satisfaction with social support during crisis : Intimacy and self-esteem as critical determina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296-304.
- Jessor, R., & Jessor, S. L. (1977). Problem behavior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New York: Academic press.
- Klimidis, S., Minas, I. H., & Ara, A. W. (1992). The PBI-BC: A brief current form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for adolescent research. Comprehensive psychiatry, 33, 374-377.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uthar, S. S., & Zigler, E.(1991). Vulnerability and competence : A review of research on resilience in childhoo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1), 6-22.
- McCubbin, H. I., Patterson, J. N., Bauman, E., & Harris, L. (1981). A-FILE : Adolescent-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St. Paul :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 McKenny, P. C., & Price, S. J. (1994). Families and change. Sage.
- McNett (1987) Social support, threat and coping responses and effectiveness in the functionally disabled. Nursing research, 36 (2), 98-103.
- Norris, F. H., & Kaniasty, K. (1996). Received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times of stress : A test of the social support

- deterioration deterrenc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3), 498-511.
- Parker, G. (1983b). Parental affectionless control as an antecedent to adult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0, 956-960.
- Parker, G. (1984). The measurement of pathogenic parenting style and its relevance to psychiatric disorder. Social psychiatry, 19, 75-81.
- Parker, G., & Barnett, B. (1988). Perceptions of parenting in childhood and social support in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 479-482.
- Parker, G., & Gladstone, G. L. (1996). Parental characteristics as influences on adjustment in adulthood in Pierce G. R., Sarason B. R., & Sarason, I. G.. (1996).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 Plenum.
- Parker, G., & Hadzi-Pavlovic, D. (1984). Modification of levels of depression in mother-bereaved women by parental and marital relationships. Psychological medicine, 14, 125-135.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Pierce, G. R., Sarason, B. R., & Sarason, I. G. (1996). Conceptualizing and assessing social support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In G. R. Pierce, B. R. Sarason, & I. G. Sarason(Eds.). Handbook of support and the family(pp.3-24). New York: Pleum press.
- Roe, A., & Siegelman, M. (1963). A parent-child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34, 355-369.
- Russell, J. D., Kopec-Schrader, E., Rey, J. M., & Beumont, P. J. V. (1992).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in adolescent patients with anorexia nervosa.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86, 236-239.
- Sarason, B. R., Shearin, E. N., Pierce, G. R., & Sarason, I. G. (1987). Interrelations of social support measures :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813-832.
- Sarason, I. G., Sarason, B. R., & Shearin, E. N. (1986). Social support as an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 : Its stability, origins and relational asp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854-855.
- Tak, Y. R. (1994). Family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family adaptation of the family who has a chronic illnes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Thoits, P. A. (1985).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Theoretical possibilities. In I. G. Sarason, & B. R. Sarason(Eds.). Social support :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p.51-72). The Hague, The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 Thoits, P. A. (1986). Social support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416-423.
- Weinert, C., & Brandt, P. A. (1987). Measuring social support with the personal resource questionnaire.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9, 589-602.
- Werner, E. E. (1992). The children of Kauai: Resiliency and recovery in adolescence and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3, 262-268.
- Yarcheski, A., Mahon, N., & Yarcheski, T. (1992). Validation of the PRQ85 social support measure for adolescents. Nursing research, 41(6), 332-337.

- Abstract -

Key concept : Parent-child relationship,
Perceived social support,
Coping

Parent-child Relationship,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in Late Adolescents

Lee, Eun Young · Tak, Young R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of female in late adolescents and its relationships.

The underlying assumption is that parent-child relationship based on internal working cognition affects o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The sample was consisted of 277 female students of college.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Parker, Tupling & Brown, 1979), Personal resources questionnaire : PRQ-part II (Weinert & Brant, 1987), and Way of coping (Folkman & Lazarus, 1985). The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ies, correlation coefficient, ANOVA, and t-test.

As a result, perceived social support correlated positively with parental care and negatively with parental overprotection. Perceived social support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ping. Perceived social support differed according to parent-child relationship type. The group of "affectionate constraint", high care and high overprotection, reported high perceived social support, but "affectionless control"(low care and high overprotection) reported low perceived social support.

The group of high perceived social support showed higher parental care and higher coping than low one. The group of high coping showed higher parental care, lower parental overprotection and higher perceived social support than low one.

Findings from this study linking retrospective accounts of early parental relationships to current working models concerning the nature of supportive relationships are consistent with attachment theory that individual who, as children, experienced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that were independent-encourage, affectionate, and not overprotective developed working models of others as available to provide social support. This study confirmed that perceived social support significantly related to coping in dealing with stress.

* Full-time lecturer, Chinju Health College, Dept. of Nursing.

** Assistant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Dept. of Nursing